

美 긴축 우려에 성장주 ‘털썩’... 정치 테마주는 ‘들썩’

임인년 첫 주주가 희비 엇갈려 바이오·인터넷·게임 줄줄이 하락 셀트리온·넷마블 등 52주 신저가 카카오뱅크도 상장 이후 최저가

대선 앞두고 정책 테마주 요동 업계 “변동성 커 투자손실 주의”

새해 첫 주 주식시장에서 성장주와 정치테마주의 희비가 뚜렷이 엇갈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에 성장주인 바이오·인터넷·게임주가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 내리막을 걸었다. 반면, 정치 테마주는 대선을 앞두고 폭등하며 들썩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지난 7일 39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 52주 신저가이자 지난해 8월 상장한 이후 최저가다.

지난 6일 셀트리온, 넷마블, 더존비



2954.89에 장을 마친 지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80.30)보다 14.86포인트(1.52%) 상승한 995.16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스시스

즈온도 각각 18만1000원, 11만2500원, 6만78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이달 들어 모두 52주 신저가를 나타냈다.

이들 종목은 모두 국내 대표 성장주 테마 지수인 'KRX BBIG K-뉴딜지수'에 포함돼 있다. 지수를 구성하는 12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아울러 바이오주인 녹십자, 신종제약, 프레스티지바이오팜마도 같은날 각각 20만1000원, 2만8700원, 9850원으로 거래를 마치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찍었다.

지난 7일 카카오뱅크도 5만5000원으

로 마감하며 증가 기준 52주 신저가이자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성장주란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 실적이 주목받는 종목으로 금리가 낮을수록 주가에 우호적이다.

그러나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김과 동시에 양적 긴축도 예고하면서 성장주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최근 각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며 성장주를 억누르고 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발언에 따라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TS트릴리온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탈모 샴푸 업체

TS트릴리온 주가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해 말 779원에서 7일 1330원으로 70.73% 올랐다. 이 종목은 5일부터 이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면서 안 후보 테마주로 거론되는 까뮤이앤씨(62.46%), 광진실업(61.44%), 오픈베이스(50.06%) 등이 연이어 오르며 한 주간 주가가 30% 이상 뛰었다.

그러나 투자업계에선 정치테마주의 경우 기업의 실적 등 펀더멘털과 무관하고 변동성이 큰 만큼 낙폭에 따른 투자손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대통령 선거 국면의 정치테마주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6~19대 대선 기간 가격 등급이 나타난 70개 종목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선거 직전 5거래일 -6.47%, 선거 직후 5거래일 -7.70%를 기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코넥스, 기본예탁금·소액투자계좌 폐지

금융위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코스닥 이전상장 재무요건 완화

정부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요건을 완화한다. 코넥스 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과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1계좌)도 폐지해 투자접근성도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

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말한다.

금융위는 우선 신속이전상장 제도의 재무요건을 완화한다. 신속이전상장제도는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해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다.

또 재무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할 경우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경로를 추가한다

현재 신속이전상장제도는 ▲소액주주 지분율 10%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자본금 규모 초과)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전상장제도를 개편해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도 폐지한다. 지금까지 코넥스 거래는 기본예탁금(현금+잔고평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했다. 단, 소액투자전용계좌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사항을 사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케이뱅크, 입찰제안서 발송... IPO 본격화

이달 중 증권사 제안서 받아 내달 중 주관사단 선정 예정

케이뱅크가 본격적으로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7일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케이뱅크는 이달 중 증권사의 제안서를 받아 다음달 중 주관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RFP 발송은 상장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대표주관 계약 체결 이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5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나유리 기자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8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첫 연간 흑자전환이 유력한 상태다. 여러 사업자와의 제휴,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2020년 말 219만명이었던 고객을 지난해 말 기준 717만명으로 늘렸다.

아울러 NHN데이터에 따르면 케이뱅크앱은 지난해 설치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앱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고객수확대에 여수신잔액은 여신은 2조9900억원에서 7조900억원으로, 수신은 3조7500억원에서 11조3200억원으로 확대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환경을 고려해 탄력적인 IPO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IPO 성공을 통해 디지털금융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인니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

39억 달러 규모 'LINE 프로젝트' EPC 계약 체결식 온라인 진행

롯데건설이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LINE 프로젝트'의 시공사로 선정돼 지난 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계약 체결식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김교현 부회장,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 간디 솔리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롯데케미칼 타이탄의 자회사 LCI의 이관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도네시아 LINE 프로젝트'는 총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왼쪽부터),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김교현 부회장, 간디 솔리스앤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현대엔지니어링 흥현성 플랜트 사업본부장이 계약 체결식 이후 포즈를 취했다. /롯데건설

사업비 39억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 수도권 자카르타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찰레곤 지역 99만 여㎡ 부지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되면 연간 에틸렌 100만톤, 프로필렌(P L) 52만톤, 폴리프로필렌(PP) 25만톤, 부타디엔(BD) 14만톤 등을 생산하게 된다.

롯데건설은 '인도네시아 LINE 프로젝트'에서 폴리프로필렌(PP), 벤젠·톨루엔·자일렌(BTX), 부타디엔(BD) 생산 시설과 유틸리티 기반 시설 및 항만 시설 등을 포함해 16억3200만달러 규모의 EPC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향후 주력 시장인 동남아 지역에서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규성기자 peace@

2차 민간 사전청약 등 전국 1.9만 가구

분양 캘린더

인천 검단, 평택 고덕 2차 민간청약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등 관심

1월 둘째주도 분양물량이 많다. 이번 주 분양시장에는 서울 물량이 없는 가운데 경기, 인천, 부산,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가 나온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22곳에서 총 1만9268가구(오피스텔·신혼희망타운·민간사전청약·임대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2차 민간 사전청약(4곳)이 시작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3곳)과 평택 고덕(1곳) 등 총 2개 지구(총 3324가구)에서 진행된다.

인천 검단에서는 ▲호반건설(AB19블록) 771가구 ▲제일건설(AB20-1블록) 551가구 ▲중흥건설(AB20-2블록) 1344가구 등 총 2666가구가 공급된다.

평택 고덕에서는 ▲대방건설(A-46블록) 658가구가 공급된다. 11일 1순위 일반공급 접수를 받는다.

한편,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부산 최대 '래미안 포레스티지', 경북 포항 비규제 단지 '포항 자이 에서턴', 전남 오룡신도시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등 알짜 단지가 속속 등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모텔하우스는 '호반써밋 포레스트' 등 2곳이 오픈한다. 당첨자 발표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등 20곳, 계약은 '라벤트힐' 등 16곳에서 진행된다. /이규성 기자